

## 永明三易說과 佛敎

梁 承 德\*

<目 次>

I. 前 言	1. 文學創作과 佛敎平易文風
II. 三易說略論	2. 永明文風과 佛學易風
1. 三易說 提起	3. 沈約과 三易說
2. 三易說 內容	IV. 結 論
III. 三易說形成要因	

### I. 前 言

南朝는 佛敎발전사에 있어서 하나의 전성기이고, 동시에 中國文學批評史에 있어서는 하나의 수확기라 말 할 수 있다. 佛敎가 兩漢시대에 中國에 들어와, 삼세기 동안 전파되다가, 東晉에 이르러 사인의 문화 대열에 진입하였고, 南朝에 들어와서는 士大夫사이에서 가장 중요한 文化思潮가 되었는데, 끼친 영향은 그 당시의 정치경제, 사회문화, 士人들의 心理狀態 등 각 영역에 까지 이른다. 中國文學批評史에서 南朝의 문학비평이 차지하는 위치는 특히 중요하다. 郭紹虞선생은 이 시기의 문학비평에 대하여 「空前啓後」(전에 없이 후대를 열다), 「文學批評的專著」(문학비평의 전문저서), 「傳至現代猶自成爲空前的偉著」(현대까지 전해져 여전히 전에 없는 위대한 저서가 되었다), 「各種批評的方式殆無不具備」(여러 가지 비평방식을 구비하지 않은 것이 없다), 「此期的批評家才眞是純粹的批評家」(이 시

\* 靑雲대학교 인문사회과학대학 중국학과 교수

기의 비평가가 정말로 순수한 비평가이다)라고 말했다. 문학비평관념의 형성은 문학창작 풍조에 대한 回歸이고, 문학비평은 또한 그 당시 사회문화 사조의 반영이다. 그래서 佛敎와 문학비평이 南朝 이 시기에 자연스럽게 인연을 맺게 된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었다. 佛敎와 南朝文學批評의 관계를 연구하는 것은 六朝文學批評에 대하여 깊은 의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게다가 佛敎와 中國文學批評 關係의 연구에도 참고 할 만 한 가치가 있다. 본문은 南朝의 永明時期<sup>1)</sup>의 「三易」說을 연구대상으로 하여, 이 문제에 대하여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자 한다.

## II. 三易說 略論

### 1. 三易說 提起

「三易」說은 《顏氏家訓·文章篇》에 보인다:

沈隱侯가 말하길 문장은 三易을 응당 따라야 한다: 전고 사용의 쉬움이 하나이다; 글자를 쉽게 알아보는 것이 둘이다; 쉽게 송독하는 것이 셋이다. 刑子才가 沈侯의 문장은 전고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사람들이 깨닫지 못 하게 하는데, 마치 胸襟에서 나오는 말 같다 라고 자주 말했다. 이것으로 깊게 탄복했다. 祖孝徵 또한 일찍이 나에게 말하길 沈의 詩에 절벽이 기울어져 石髓를 보호 한 다 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것이 어찌 전고를 썼

1) 永明은 南齊齊武帝年號이다. 서기 482년에 齊武帝 蕭道成의 병고로 인하여, 그 아들 蕭曠이 즉위했는데, 그가 바로 武帝이고, 그 다음해 永明으로 年號를 바꾸었다. 493년에 武帝가 병고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로써 11년간의 永明은 끝을 마치게 된다. 그러나 永明文學批評의 시간적 범위는 역사적인 범위에서의 永明시기 보다도 더 넓다. 文學史研究에서 永明文學이 일컫는 시기는 하향시기가 梁天監 12年(513年)까지 이고, 또한 永明文學의 중심인물인 沈約의 卒年이기도 한데, 이것은 이미 文學史界에서 공감하는 부분이다. 그 원인은 永明의 많은 문인이 永明 이후 내지는 梁初에 이르기 까지 줄곧 활약 했고, 그들의 창작은 여전히 永明文學의 중요한 구성부분이기 때문이다.

던 것 같겠는가?라고 했다. 刑子才、魏收는 모두 명성이 두터웠는데, 時俗은 이것을 준하여 스승으로 여겼다. 刑이 沈約에 탄복했으나 任昉을 가볍게 생각했고, 魏收는 任昉을 애모했으나 沈約을 훼손했으니, 매년 연회에 서 담론 할 때, 얼굴이 귀밑까지 빨개질 정도로 쟁론하며 다툰다. 도읍에서 구름처럼 일어나, 각기 朋黨으로 삼았다. 祖孝徵이 任、沈의 是非는 바로 刑、魏의 優劣이라고 말했다(沈隱侯曰: 文章當從三易: 易見事, 一也; 易識字, 二也; 易誦讀, 三也. 刑子才常曰: 沈侯文章, 用事不使人覺, 若胸臆語也. 深以此服之. 祖孝徵亦嘗謂吾曰: 沈詩云: 崖傾護石髓. 此豈似用事邪? 刑子才、魏收, 俱有重名, 時俗準的, 以爲師匠. 刑賞服沈約而輕任昉, 魏愛慕任昉而毀沈約, 每於談宴, 辭色以之. 鄴下紛紜, 各爲朋黨. 祖孝徵曰: 任、沈之是非, 乃刑、魏之優劣也)

여기에서 「三易」說을 沈約이 제기한 것으로 밝히고 있으나, 沈約의 문장이나 저작 중에서 그가 그러한 말을 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顏氏家訓》은 「北齊의 黃門侍郎인 顏之推가 지음」(北齊黃門侍郎顏之推撰)이라고 서명하고 있지만, 이 책은 그가 隋에 들어간 이후에 지은 것이다<sup>2)</sup>. 여기

2) 스스로를 北齊 黃門侍郎에 속한다고 한 것에 관하여, 王利器 선생은 「顏之推가 연달아 역대로 남북조에서 관직에 있었는데, 관리사회의 부침으로, 黃門侍郎이 가장 현달한 것 이다. 《陳書·蔡凝傳》에서 高祖가 일찍이 凝에게 나는 義興主婿錢肅를 黃門郎으로 삼고 싶은데, 경의 뜻은 어떠한가? 라고 물은 적이 있었다. 凝이 정색하여 황제의 고향 구척으로, 황은은 성지로 부터이니, 다시 물어 볼 수 없다; 만약에 여러 사람의 협의로 바로 잡자면, 黃門職은 위인됨과 문벌이 아름다움을 겸해야 하는 것이니, 폐하께서 결정 하십시오 라고 말했다. 高祖는 묵묵부답하면서 마쳤다. 이처럼 당시에 黃散職에 대한 중시를 볼 수 있다. 之推가 梁에서는 散騎侍郎이었고, 齊에 들어가서는 黃門侍郎이었는데, 고로 之推는 그 작품에서 한편으로 송구스럽게도 黃散이어서 비방을 받았다 라고 하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근래 黃門郎이 되었다고 말했는데, 그가 이렇게 흥미진진하게 말한 것은 아마도 그 스스로 위인 됨과 문벌이 아름답다는 것을 과시하는 것 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여기에서 스스로 이렇게 서명한 것에는 疑義가 없는 것이다」라고 상세하게 논술했다(尋顏之推歷官南北朝, 宦海浮沈, 當以黃門侍郎最爲清顯. 《陳書·蔡凝傳》: 「高祖嘗謂凝曰我欲用義興主婿錢肅爲黃門郎, 卿意如何? 應正色對曰: 「帝鄉舊戚, 恩由聖旨, 則無所復問; 若格以僉議, 黃散之職, 故須人門兼美, 唯陛下裁之, 高祖默然而止. 這可見當時對於黃散之職的重視. 之推在梁爲散騎侍郎, 入齊爲黃門侍郎, 故之推於其作品中, 一

에 한 가지 문제가 대두되는데, 그것은 바로 顏之推 기록의 신빙성이다.

顏之推의 선조는 북방의 豪門望族으로, 江南으로 와서도 여전히 「僑姓高門」에 속했다. 그 아버지 顏協은 梁武帝 7번째 아들인 湘東王 蕭繹의 國常侍、軍府咨議參軍등의 직을 역임했다. 《梁書·文學傳》에 의하면, 顏協은 「群書에 두루 涉獵하고 草書와 隸書에 능했다」(博涉群書, 工於草隸)이라고 했다. 顏氏 가족은 세대에 걸친 宦官이고, 조상 대대로 전해져 내려온 명망 있는 가문일 뿐만 아니라, 게다가 「《周官》、《左氏》學에 세대에 걸쳐 능했다」(世善《周官》、《左氏》學)한 학자가문이다.

顏之推는 梁武帝 大通 3년(503년)에 태어났다. 12세 때 蕭繹이 老莊學을 강론하자, 제자가 되어 《禮》、《傳》까지 공부하여, 「博覽群書」했으며, 게다가 「無不該洽」하고, 특히 문장 짓길 좋아하여, 「詞情이 바르고 고아 西府에 의해 심히 칭송되었다」(詞情典麗, 甚爲西府所稱)(《北齊書·顏之推傳》)했다. 梁武帝 太清 3년(549년), 19세의 顏之推는 湘東王國左常侍를 맡았고, 鎮西墨曹參軍이라는 직책을 더하였다. 梁簡文帝 大寶 2년(551년), 蕭繹은 그의 아들 蕭方諸를 郢州에 주둔시켰는데, 顏之推는 管記를 맡아 수행하였다. 그 다음해 梁元帝 承聖元年(552년)에, 梁元帝 蕭繹의 散騎侍郎을 맡아 舍人의 일을 상주하고, 명을 받들어 建康에서 江陵으로 운반해 온 梁室의 藏書를 교정했다. 《北齊書·顏之推傳》에 그의 <觀我生賦>自註를 실어: 「王司徒(王僧辯)가 秘閣에 舊事8만권을 보내고, 조칙을 내려 비교하게 했는데, 部는 正御、副御、重雜 등 세 가지 本으로 나누었다. 左民尙書周弘正、黃門郎彭僧朗、直省學士王珪、戴陵이 經部를 교정하고, 左仆射王褒、吏部尙書宗懷正、員外郎顏之推、直學士劉仁英이 史部를 교정하며, 廷尉卿殷不害、御史中丞王孝紀、中書郎鄭苾、金部郎中徐報가 子部를 교정하고, 右衛將軍庾信、中書郎王固、晉安王文學宗善業、直省學士周確이 集部를 교정하게 했다」(王司徒(王僧辯)表送秘閣舊事八萬卷, 乃詔比較,

則曰「添黃散於官謗(<觀我生賦>, 再則曰「吾近爲黃門郎(<止足篇>), 其所以如此津津樂道者, 大概也是自炫其《人門兼美》吧. 然則此蓋其自署如此, 可無疑義」《顏氏家訓集解·序錄》, 上海古籍出版社, 1980, 2쪽.

部分爲正御、副御、重雜三本。左民尙書周弘正、黃門郎彭僧朗、直省學士王珪、戴陵校經部、左仆射王褒、吏部尙書宗懷正、員外郎顏之推、直學士劉仁英校史部、廷尉卿殷不害、御史中丞王孝紀、中書郎鄭荇、金部郎中徐報校子部、右衛將軍庾信、中書郎王固、晉安王文學宗善業、直省學士周確校集部也)라고 말하고 있다. 이것이 그가 2년 동안 비각의 장서를 읽게 하였고, 《顏氏家訓》저술에 큰 도움을 주었다. 元帝 承聖 3년(554년), 西魏軍이 江陵을 함락시키자, 顏之推는 關中에 포로로 잡혔다가, 北齊 文宣帝 天寶 7년(556년)에 北齊로 도망갔다. 北齊에서 趙州功曹參軍、通直散騎常侍、中書舍人、黃門侍郎 등의 관직을 역임하고, 文林館의 일을 주재하면서 《修文殿御覽》을 편찬 했다. 北周로 들어가서는 御史上士에 임직했다. 隋에서는 開皇中에 太子 楊勇에 의하여 學士로 봉직하다가, 얼마 지나지 않아 병사했다.

顏之推가 蕭梁을 떠날 때가 梁元帝 承聖 3년(554년)으로, 그의 나이 24세인데, 이전에는 줄곧 남방에서 생활하였다. 沈約의 卒年은 梁武帝 天監 12년(513년)으로, 비록 죽었지만 「一代詞宗」(《南史·任昉傳》)으로 귀하게 받아들여진 沈約은 梁代에 대단한 영향을 끼쳤다. 簡文帝 蕭綱이 일찍이 「近世에 와서 謝朓、沈約의 詩, 任昉、陸倕의 筆은 실로 문장의 면류관이고, 述作의 모범이다」(至如近世謝朓、沈約之詩, 任昉、陸倕之筆, 斯實文章之冠冕, 述作之楷模)라고 일컬었다. 元帝 蕭繹 또한 일찍이 「詩가 많고 能한 자는 沈約이고, 적으면서 能한 자는 謝朓、何遜이다」(詩多而能者沈約, 少而能者謝朓、何遜)이라고 말했다. 두 황제의 숭배로부터 沈約의 사상 언론 등에 관한 자료가 당시에 대단한 중시를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元帝 때에 벼슬을 한 顏之推는 梁朝에서 생활하던 시간이 沈約의 생존 연대와 멀지 않은데, 중요한 것은 그가 梁朝의 국가도서를 교정한 것으로, 이것이 그에게 일반인이 보기 어려운 많은 자료를 볼 수 있게 했다. 《顏氏家訓》에서 沈約에 대한 안지추의 숭배를 볼 수 있다. 「三易」說이 沈約의 文集에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顏之推가 기록한 沈約의 말은 依託할 만하고, 그 신뢰도에 관하여도 의심 할 필요가 없다.

沈約의 「三易」說 제기 시기에 관하여, 沈約의 《宋書》는 永明6년에 완성된 것으로, 《宋書·謝靈運傳論》에서는 曹植의 <函京> 작품 등 네 가지를 예로 연이어 들어, 그것이 「직접 흥중의 감정을 들고, 詩史에 의지하지 않으며, 音律으로써 韻을 조합하는 것을 실증하니, 前人の 法式 보다 높다」(直舉胸情, 非傍詩史, 正以音律調韻, 取高前式) 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直舉胸情」과 「音律調韻」은 「三易」說 정신과 일치된다. 그리고 沈約、謝朓 등이 永明年間에 공동으로 제창한 「永明體」는 그 창작정신이 「三易」理論과도 일치된다. 永明體 詩人이 창작 중에서 聲律을 이용하여, 詩歌의 吟誦이 口語보다 더 조화를 이루어 유창하게 함으로써, 읊기 쉽게 할 뿐만 아니라, 게다가 晉宋 이래로 유행한 對句의 형식과 쉬운 口語와의 상호 결합을 강구하고, 文字의 駢麗와 對句의 工整에 힘쓰면서, 또한 자주 보여지는 말과 쉽게 알아보는 글자를 사용하였다. 典故의 사용에 있어서 자연스러움을 강조하면서, 설사 알아보지 못 할지라도, 기본적인 이해를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 그리하여 刑子才가 沈約의 문장은 「전고 사용이 사람으로 하여금 깨닫지 못 하게 하니, 마치 흥중에서 나오는 말 같다」(用事不使人覺, 若胸臆語)라고 탄복했다. 또 謝朓에게는 「좋은 시는 탄환처럼 둥글고 아름답게 흐른 다」(好詩圓美流轉如彈丸)(《南史·王筠傳》)이라는 주장이 있는데, 다시 말하자면, 좋은 시는 기세 있게 써야 하고, 원활하고 유창해야 하며, 발음하기가 어려워서는 안 된다는 것인데, 「三易」이론의 정신과 일치되는 것으로, 沈約은 이 주장을 대단히 숭배하였다. 상술한 예증으로 볼 때, 「三易」說은 永明年間에 제기한 것으로, 沈約이 제창한 「三易」說은 바로 永明文風을 지도하는 강령적인 이론이다.

## 2. 三易說 內容

소위 「三易」이라 함은 「易見事、易識字、易誦讀」세 가지를 가리키는데, 「三易」說의 핵심이 바로 「易」자에 있음을 알 수 있다. 「易」을 直解하면 容易의 뜻이나, 「三易」說에서의 그 뜻은 훨씬 더 풍부하다.

우선 「易見事」에 대하여 알아보겠다. 소위 「事」라고 하는 것은 바로 「典」인데, 즉 典故를 말하는 것으로, 고대의 고사와 고인의 성어를 포함한다. 用事는 바로 시문 중에서 고사 혹은 성어를 인용하는 것이다. 고대의 문학가는 대다수가 학문가로, 역사전적에 대하여 비교적 잘 알고 있어서, 시인 작가들 중에는 전고를 사용하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이었다. 이점은 六朝文人 중에서 특히 잘 나타나는데, 예를 들어 劉勰은 《文心雕龍》에서 <事類>를 열거하여 전고사용에 대한 상관 문제를 토론하고 있다. 전고사용의 목적은 劉勰이 「事類라고 하는 것은 文章 이외에 古事를 이용하여 뜻을 유추하고, 古人을 인용하여 오늘날의 일을 증명하는 것이다」(事類者, 蓋文章之外, 據事以類義, 援古以證今者也)라고 말 한 것과 같다.

「易見事」는 바로 문장 중에서 자연스럽게 전고를 사용하여 인식하기 쉽게 함으로써 「若胸臆語」의 경지에 이르게 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王粲의 <七哀詩>: 「南으로 霸陵의 언덕에 올라, 머리를 돌려 長安을 바라본다. 그 下泉의 사람을 깨달으니, 탄식하여 마음이 아프다」(南登霸陵岸, 回首望長安. 悟彼下泉人, 喟然傷心肝)에서는 두 개의 전고를 쓰고 있는데 霸陵은 漢文帝 劉恒의 陵이고, 下泉은 《詩經·曹風》중의 한편으로, 主題는 亂이 極에 달해 治理를 생각한다는 것이다. 이 두 구는 천하태평과 현명한 임금에 그리워하는 작가의 뜻을 표현하고 있는데, 典故를 자연스럽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宋、齊、梁代의 몇몇 대작가들 顏延之、謝靈運、鮑照、江淹 등의 작품은 과다한 典故使用으로, 학자의 냄새가 너무나 진하고, 또한 진부한 것을 피하기 위해, 일부러 새로운 글자와 어려운 전고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언어풍격이 딱딱하고 유창하지 않은 점이 있다. 《文心雕龍·定勢篇》에서 劉勰이 「근대의 辭人들은 대개 괴이하고 교묘한 것을 좋아 한다」(近代辭人, 率好詭巧), 「과거의 舊式을 버리고, 억지로 새로운 것을 취 한다」(厭黷舊式, 故穿鑿取新)라고 말한 것과 같다. 《南史·任昉傳》에서 任昉을 「文才로써 눈에 띄었는데, 時人들은 任昉의 筆과 沈約의 詩라고 말했다. 昉이 듣자 심히 흠으로 여기어, 晩年에 더욱더 시를 즐겨 지어, 沈을 능가하고 싶었으나, 典故를 과다하게 사용하여, 문장이 도리어

유창하지 못 했다. 이로부터 도읍의 사인들이 이를 양모하여, 더욱더 부화뇌동하니, 이로 인해 재능이 다 하였다는 말이 있게 되었다。(既以文才見之, 時人云《任筆沈詩》. 昉聞甚以爲病. 晚節轉好著詩, 欲以傾沈, 用事過多, 屬辭不得流便, 自爾都下士子慕之, 轉爲穿鑿, 於是有才盡之談矣)라고 했다. 沈約이 「易見事」를 제창한 것은 바로 당시 문단의 풍조에 대한 하나의 혁신이었다. 沈約은 「易見事」라는 주장을 제창 했을 뿐만 아니라, 시가를 쓰는 데에 있어서도 몸소 실천에 옮겼다. 예를 들어 그의 <別范安成> 마지막 구절인 「夢中不識路, 何以慰相思」(꿈속에서 길을 모르니, 어떻게 서로의 그리움을 위로할까?)—聯은 《文選》李善注는 《韓非子》에서 기재 한 周나라 때 張敏과 高惠는 사이가 좋았는데, 張이 高를 보고 싶은 나머지, 꿈속에서 찾아 떠나다, 도중에 길을 잃어 돌아왔다는 典故를 사용하고 있다<sup>3)</sup>. 本聯의 묘하고 적절하며 엇바꾸는 흔적이 전혀 나타나지 않는 이러한 수법이 바로 「易見事」의 원칙을 실현한 전형적인 예로 刑邵, 祖珽이 탄복했다.

그 다음으로 「易識字」인데, 문장에 쓰는 글자는 쉽게 알아보게 해야 한다는 것으로, 다시 말해서, 통용되는 글자를 사용하는 것이지, 딱딱하고 기괴한 문자를 쓰지 않는다는 것이다. 문장은 사람의 감정과 지향을 표현하는 것으로, 감정과 지향을 기탁하려면 문자에 의지해야 한다. 예를 들어 字句가 기이하고 생소하면, 난해하기 때문에 교화하기에 부족하다. 그러나 宋齊시기에 이러한 문제가 존재했다. 《文心雕龍·鍊字》에서 「前漢에 小學에 뛰어난 작가들은 대부분 奇異한 글자가 많은데, 특별한 주장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고, 당시의 작가들이 어려운 글자에 통달하였기 때문이다. 後漢에 이르러, 小學의 연구가 부족하여, 복잡하고 심오한 字義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몰랐다. 魏代의 창작에 이르러, 글자에 법도가 생겼는데, 漢代의 작품을 회고하여 보면, 오히려 장애가 생겼다. 고로 陳思王이 揚雄, 司馬相如의 작품은 취지가 그윽하고 깊어, 독자들은 스승의 전수가 아니

3) 《文選》20卷 <別范安成> 李善注, 上海古籍出版社 1986年, 983쪽.

면 그 사구를 이해 할 수 없었으며, 박학하지 않으면 그 내용을 이해하기 어렵 다 라고 말했다. 어찌 독자의 재능이 부족한 것이겠는가? 이 또한 글자가 심오하기 때문인 것이다. 쫓 이래로 글자를 사용하는 데에 있어서, 대부분 간단하고 쉬운 것을 따랐으니, 그때는 간단하고 쉬운 것에 습관이 되었기에, 누가 어려운 자를 취했겠는가? 오늘날 글자 하나가 기이하면, 여러 구문을 놀라게 한 다: 세 사람이 알지 못한다면, 그 글자는 요상하게 될 것이다.(前漢小學, 率多瑋字, 非獨制異, 乃共曉難也. 暨乎後漢, 小學轉流, 復文隱訓, 臧否大半. 及魏代綴藻, 則字有常檢, 追觀漢作, 翻成阻奧. 故陳思稱《揚馬之作, 趣幽旨深, 讀者非師傅不能析其辭, 非博學不能綜其理》豈直才懸, 抑亦字隱. 自晉來用字, 率從簡易, 時並習易, 人誰取難? 今一字詭異, 則群句震驚: 三人不識, 則將成字妖矣)라고 하고 있다. 劉勰은 이러한 현상에 대하여 비평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沈約은 劉勰의 《文心雕龍》을 중하게 여기어, 항상 머리 밑에 놓을 정도로 칭찬하였다. 이것은 창작에 대한 이 두 사람의 견해가 기본적으로 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 「易識字」 또한 마찬가지 이다. 沈約의 詩를 예로 들어 보면:

<別范安成>:

젊었을 때는 이별을 쉽게 생각했네. 노쇠한 노년에 이르렀네, 이별을 한다면 다시 만날 수 있는지 어렵기만 하네. 한 잔의 술이라고 말하지 말지니, 앞으로 다시는 들기가 어려울 것 이네. 꿈속에서 길을 모르니, 어떻게 서로의 그리움을 위로할까?(生平少年日, 分手易前期. 及爾同衰暮, 非復離離時. 勿言一樽酒, 明日難重持. 夢中不識路, 何以慰相思)

<古意>:

거문고를 끼고 수풀 계단아래에 내려오네, 그 아래에서 배회하며 얼굴 빛을 좋아하네. 날이 저물도록 오랫동안 서 있다 보니, 오장을 고통스럽게 하듯이 괴롭네. 이슬 맞은 해바라기는 이미 딸 만하고, 기수의 물은 옷에 젖지 않네. 비단 옷을 입어도 따듯하지 않네, 비단 옷은 헛되이 향을 발하네. 밝은 달이 비록 바깥에서 비추지만, 마음이 아픈 것을 어찌 알겠느냐?(挾瑟叢台下, 徒倚愛容光. 佇立日已暮, 戚戚苦人腸. 露葵已堪摘, 淇水未沾)

裳. 錦衾無獨暖, 羅衣空自香. 明月雖外照, 寧知心內傷?)

이 두 詩는 마치 말을 하는 듯이 명백하고 이해하기 쉬우며, 또한 詩속에 어려운 글자가 없어, 「易識字」의 정신을 관철시켰다고 볼 수 있다. 天監 初년에 沈約이 郊廟歌辭를 지었는데, 晉宋의 典故를 중시하는 舊習에 반하여, 비교적 쉬운 언어로 대체시켰다. 大同2년에 蕭子雲이 上書하여 沈約이 지은 가사는 「經典을 전부 쓰지 않는 다」(全不用經典), 「더욱더 미천하고 잡스럽다」(彌復淺雜)이라고 말했다. 이에 梁武帝가 조칙을 내려 「郊廟歌辭는 典誥大語이어야 하고, 子史文章에는 천박한 언어를 잡용해서는 안 된다」(郊廟歌辭, 應須典誥大語, 不得雜用子史文章淺言)(《梁書·蕭子雲傳》)이라고 했다. 蕭子雲의 불만은 沈約이 시가 언어에 대하여 진행했던 개혁을 반증하고 있는 것인데, 심약은 철저하게 했던 것이다. 郊廟歌辭는 물론이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이다.

마지막으로 「易誦讀」인데, 문장은 입으로 음송하기 쉬워야 한다는 것이다. 고대 시가는 원래唱을 위주로 하였기에 歌詩라고 부른다. 漢魏 이래, 詩와 樂이 나날이 분리되어지자, 시가는 歌詠을 위주로 하다가, 誦讀위주로 변하여 徒詩라고 부른다. 그래서 沈約이 제창한 「易誦讀」은 실제로 두 가지 점을 요구 한다: 하나는 문장에 쓰는 말이 쉬워야 한다는 것인데, 이것은 「兩易」을 전제로 해야 하는 것으로, 전고를 적게 사용하고, 용어가 쉬워야 송독이 쉬워 질수가 있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문장 특히 시가의 언어는 聲韻의 和諧를 요구하고 있다. 왜냐하면 문장은 읊어야 하는 것으로, 억양기복이 당연히 있어야 되는데, 만약에 聲韻의 和諧가 잘 어울리면, 문장을 음송할 때 더욱더 조화롭고 유창해져, 읊기가 쉬워지기 때문이다. 이것이 「易誦讀」이 지향하는 진정한 내용이다. 그러면 어떻게 시가로 하여금 「易誦讀」하게 할 수 있겠는가? 방법은 바로 《宋書·謝靈運傳論》에서 제기한 聲律理論으로, 즉 「五色이 서로 비추니 색채가 더욱더 선명하고, 八音이 합주하니 성음이 협조를 이루어 유창하다. 이것은 색채와 성조가 적당하게 짜였기 때문이다. 平聲과 仄聲을 서로 변환시키려면, 성음의

고저가 서로 조절되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앞 글자가 평성이면, 뒤 글자는 반드시 측성이어야 한다. 한 구중에 音韻이 다르다; 두 구중에 輕重이 다르다. 이 도리를 묘하게 이해하면, 비로소 文이라 말 한다」(夫五色相宜, 八音協暢. 由乎玄黃律呂, 各適物宜. 欲使宮羽相變, 低昂互節, 若前有浮聲, 則後須切響. 一簡之內, 音韻盡殊; 兩句之中, 輕重悉異. 妙達此旨, 始可言文)이다. 沈約은 시가가 음악 같은 아름다움을 가지게 하려면, 平聲과 仄聲에 서로 변화를 주어야 하고, 高音과 低音을 교차 조합함으로써, 清濁과 高下가 리듬이 있게 되고, 소리의 높낮이와 곡절이 조화롭고 유창해져 읽기가 좋아지게 된다고 주장한다. 聲律의 配合은 沈約 등의 문인이 제창한 永明體 詩歌의 주요 특징으로, 沈約은 시가의 「易誦讀」창작원칙을 대단히 중시했다. 그는 몸소 실천에 옮겨, 시를 지을 때 「易誦讀」의 특징을 갖추고 있었을 뿐 만 아니라, 또한 그 당시에 송독하기 쉽지 않은 몇몇 시가에 대하여도 비평을 가하였다. 예를 들어 《太平廣記》198권에서 인용한 《談藪》「沈約」란에 「均」이 詩를 지어 가을바람에 하얀 물이 줄줄 흐르고, 기러기발이 누런 모래에 새겨져있네 라고 했다. 沈隱侯 約은 印黃沙라는 말이 너무 험하다고 말했다.((吳)均又爲詩曰: 「秋風瀧白水, 雁足印黃沙」沈隱侯約語之曰: 「印黃沙語太險」)이라는 기록이 있는데, 「語太險」이 바로 읽다보니 까다롭고 유창하지 않으며, 음악 감이 없다는 뜻이다.

상술한 분석으로부터 沈約의 「三易」說 제기는 당시의 불량한 文風에 대하여 발 한 것이고, 그의 新變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沈約은 宋齊梁三代에 걸쳐 생활했는데, 바로 文風이 끊임없이 변화하던 시기이었다. 앞에서 분석한 것처럼, 劉宋이 晉을 대체한 이후에, 詩風이 변하기 시작했다. 劉宋文人은 문학자체의 특징에 주의를 기울이기 시작하여, 「情과 志가 움직이면, 每篇의 辭가 귀해진다」(情志既動, 篇辭爲貴)、 「마음을 꺼내어 모양을 나타나게 한 다」(抽心呈貌)、 「言語는 보아서 아름다움을 원칙으로 한 다」(言觀麗則)(《後漢書·文苑列傳贊》)를 문장의 기본요소로 여겼고, 文藝觀에서 典正을 최상으로 삼았다. 生硬한 文風이 많은 문인들 사이에서 상당히 유행하였다. 永明전후를 하여 文風에 변화가 다시 한 번 일어

났는데, 즉 元嘉文風の 典正하고 단조로운 테두리에서 벗어나, 쉽고 유창하며 말하듯이 명백한 문풍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沈約의 「三易」說은 이 창작 풍조에 따라 제기된 창작원칙 이다.

하나의 문학기론 형성은 일시적인 문학창작 풍조에 대한 반향이고, 그것은 또한 문학사상속에서 반영되는 사회문화 사조이다. 永明文人이 제창한 「三易」이론의 경향은 매우 많은 부분에서 당시의 佛學思想으로 부터 전수 받았다.

### III. 三易說形成要因

佛敎의 世俗化는 永明 審美觀念의 俗化에 關建적인 역할을 하였다. 平易文風과 簡易學風은 佛敎世俗化의 구체적인 표현이다. 永明世俗化의 審美觀念은 또한 平易文風과 簡易學風을 요구하고 있는데, 「三易」說의 平易特徵과 佛學平易觀念의 내재적인 일치성이 바로 이점을 설명해주고 있다. 그래서 佛敎世俗化가 審美觀念에 대한 끼친 영향은 「三易」說이 제기되는 중요한 배경이 되었고, 世俗化 표현의 하나인 佛學易風은 「三易」說의 제기에 더욱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말해 문학기론의 제기는 일시적인 창작실천에 대한 회귀이며, 또한 이론적인 배경을 연역적인 기초로 삼는다. 佛學의 易風은 이 두 가지 면에서 「三易」說의 제기에 역할을 하였다고 말 할 수 있다.

#### 1. 文學創作과 佛敎平易文風

佛敎의 平易文風은 東晉에 佛敎가 盛行 한 이후로 부터 당시의 문학창작 풍조에 점차로 영향을 끼치기 시작했다. 佛敎의 平易文風이 정식으로 盛行 한 것은 劉宋 때부터 시작되었다. 佛敎世俗化가 이 풍조를 盛行시킨 근본적인 원인이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劉宋시기의 譯經高潮와도 직접적

인 관계가 있다.

《開元釋教錄》의 기록에 의하면, 南朝 네 朝代의 譯經 數는 宋이 465部 717卷, 齊가 12部 32卷, 梁이 46部 201卷, 陳이 40部 133卷이다. 劉宋의 譯經 數가 세 朝代의 總數보다도 더 많은데, 당시에 譯事가 얼마나 성행하였던가를 알 수 있다. 劉宋의 譯經은 後晉 鳩摩羅什의 譯經事業을 이은 또 한 번의 절정으로, 譯經風格은 鳩摩羅什 이론의 영향을 받았는데,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劉宋 譯經의 중건 대부분이 羅什 譯經集團의 구성원이었다는 점이다. 鳩摩羅什이 長安에서 조직한 國家譯場은 당시의 많은 의숙 名僧들이 집결했었는데, 盧山 慧遠을 제외하고는, 전국의 승도들 거의 대부분이 鳩摩羅什을 師事했다. 서기 413년에 羅什이 죽고, 4년 후에 劉裕가 長安을 침공하자, 羅什주위에 모였던 지식 승려들 중 일부분이 徐州로 간 것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南下하여 劉宋佛敎의 중건이 됨으로써, 羅什의 譯經理論과 風格이 줄곧 劉宋譯經에 영향을 끼쳤다. 물론 劉宋의 譯事繁榮은 북방의 두 차례에 걸친 佛敎消滅政策과도 관계가 있다. 439년에 北魏의 拓跋燾가 姑臧에 진군하여 佛籍을 불살라 버리자, 慧嵩、道朗을 둘러싼 凉州의 많은 승려들이 서쪽으로 간 자 이외에, 대부분이 宋의 境地안에 들어왔다; 446년에 拓跋燾가 「滅佛法詔」를 내리자, 魏의 境地 內에 있던 사문들이 남으로 도망갔다. 이로써 전국에 뿔뿔이 흩어져있던 승려와 翻譯人才들은 거의 모두 강남으로 집중되었다. 그리고 晉宋 때 西行求法運動의 성행은 劉宋의 譯事를 번영시켰다. 湯用彤 선생은 晉末에서 宋初까지 西行한 사람들 중 이름을 고증할 수는 자가 수십명에 달하고, 事迹이 보이지 않고 또한 姓名이 전하지 않는 자는 부지기수라고 통계했다. 西行求法의 중요한 목적은 「搜研正本」(정본을 수집하고 연구한다)(《大涅槃經書》)인데, 西行하여 돌아오는 자는 대량의 佛典을 가지고 왔다. 게다가 그들이 西行하여 배워온 것은 梵胡言語로 佛經翻譯에 큰 도움을 주었다. 상술한 요인들이 劉宋佛經翻譯事業의 발전을 촉진시켰고, 또한 佛經翻譯에 있어서 平易文風의 성행을 촉진시켰다.

이밖에, 劉宋시기 佛敎聲韻問題研究의 흥성 또한 平易文風의 유행에 영

향을 끼쳤다. 呪贊과 唱導는 이미 魏晉 때에 실전되었지만, 그 성행은 晉 宋 때부터 시작되었는데, 특히 劉宋 이후이다. 최초로 梵唄를 창제한 사람은 陳思王 曹植이고(《大涅槃經書·經師論》), 그 후로 支謙이 「制《菩提連句梵唄》三契」하고, 康僧會가 「制《涅槃梵唄》」했으며, 帛尸梨蜜多羅가 「作《胡唄三戒》」하고, 支曇論이 「制《六言梵唄》」(《高僧傳》각 本傳에 보임)했다. 그러나 梵音은 전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魏晉 때에 梵唄의 소리는 서역의 승인이나 혹은 漢地에서 출생하였지만, 본적이 서역이고, 梵文을 아는 승인들이 즐겨 했는데, 漢地의 僧人중에서 梵唄를 할 수 있는 자가 극히 적었고, 轉讀 또한 마찬가지 이었다. 南朝 宋齊 때에 이르러, 西行求法과 漢梵 音에 대한 논쟁이 성행함에 따라, 梵文과 梵音에 통달하는 자가 크게 늘었고, 轉讀、梵唄에 정통한 승인들도 점차로 많아졌다. 《高僧傳》의 기록에 따르면, 그 당시에 轉讀、梵唄를 잘하는 승려로 僧饒、道慧、智宗、曇遷、曇智、僧辯、曇凭、慧忍、法隣、曇辯、曇念、曇幹、曇進、慧超、道首、曇調등이 있었다고 한다. 이들 승인들은 모두 宋齊에 걸쳐 생활했고, 대부분이 建康에서 포교했는데, 당시 건강 지역에 轉讀과 梵唄가 흥성했음을 알 수 있다. 唱導는 魏晉시에 이미 유행하였지만, 일정한 규칙이 없다가, 廬山 慧遠에 이르러, 「매번 齋集에 와, 늘 스스로 높은 자리에 올라, 몸소 唱導의 머리가 되었다」(每至齋集, 輒自升高座, 躬爲導首)했는데, 三世의 인연을 말하고, 齋集의 大意를 강론하여, 후세의 모범이 되었으며, 그 唱導하는 방법이 「드디어 부르는 법칙이 되었다」(遂成詠則)(《高僧傳·唱導論》)이었다. 轉讀、梵唄는 宋齊 간에 흥성하였는데, 그중 唱導는 특히 성행했다. 《高僧傳·唱導論》篇에 기재한 17명의 唱導師 모두 宋齊에 걸쳐 생활하였고, 대부분이 建康에서 포교하였으며, 轉讀、梵唄의 결합 또한 이 지역에 집중적으로 성행하였는데, 당시 建康지역에서 佛教聲韻에 대한 연구가 어느정도 었는지 가히 상상 할 수 있다. 《高僧傳·經師論》에 이를 증명할 만 한 기록이 있는데, 즉 「宋齊사이에 이르러 曇遷、僧辯、太傅、文宣等이 있었는데, 너스시 읊고, 音律을 자세히 헤아리고, 다르고 같음을 저술하고 모아, 과례를 따진다. 舊法을 모방

하여, 三百餘 소리를 올바르게 했다」(逮宋齊之間, 有曇遷、僧辯、太傅、文宣等, 並慙慙嗟詠, 曲意音律, 撰集異同, 斟酌科例. 存做舊法, 正可三百餘聲) 이라고 했다.

하나의 文化思潮가 모든 사회문화의 중심이 될 때, 문학발전은 필연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으로, 佛敎의 文化思潮는 劉宋시기에 있어서 바로 이러한 思潮이었다. 梁啓超는 「佛이 문사로 뜻을 해하면서도 보급된 것은 설법이 모두 통속어를 사용했다. 譯家들은 이 뜻을 잘 알고 있어, 말을 운용 하는데 예도 힘써 통속을 구했다……고로 문장을 가지고 전적으로 논하자면, 당시의 여러 역사들이 힘써 통속을 구했다고 말할 수 있는데, 사실대로 말하자면, 당시에 있어 일종의 혁명적인 백화 신문체인 것으로, 佛典이 中國의 文學界에 하나의 신천지를 열 수 있었다는 것은 이 같은 연유에서 이다」(佛恐以辭害意且妨普及, 故說法皆用通俗語. 譯家雅深知此意, 遺語亦務求喻俗……故專以文論, 則當時諸譯師, 實可謂力求通俗, 質言之, 則當時一種革命的白話新文體也, 佛典所以能爲我國文學界開一新天地, 皆此之由也)<sup>4)</sup>라고 말했다. 이러한 「白話」式 平易文風이 문학창작에 대하여 끼친 영향은 우선 佛敎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인들에게서 반영된다. 劉宋時期에 「元嘉之雄」으로 칭송된 謝靈運의 창작에서 그러한 영향을 볼 수 있다.

謝靈運은 佛敎의 平易文風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것은 그가 北本 《大般涅槃經》의 개정에 참여한 것으로부터 나타난다. 北涼沮渠蒙遜玄始10年(421)에, 中天竺人 曇無讖이 姑臧에서 《大般涅槃經》40권을 翻譯하였는데, 세칭 北本이라 하고, 元嘉7년에 建康으로 南傳 된다. 曇無讖이 翻譯한 北本은 상당히 진지한 것이었으나, 「집필자는 경사가 입으로 翻譯 한 바를 이어받아, 화려하게 장식하지 않았다」(執筆者一承經師口所譯, 不加華飾<sup>5)</sup>), 「언어는 작고 질박하며, 심히 유미하지 않다」(語小朴質, 不甚流靡)로 말미암아, 문자의 표현은 비교적 조잡하

4) 鬱龍余編, 《中印文學關係源流》, 湖南文藝出版社 1987年, 3-4쪽.

5) <大涅槃經紀>, 《出三藏記集》 8卷.

고, 질박하여 우아함과 유창함이 부족하며, 심지어 文辭가 뜻을 제대로 표현 못한 곳도 몇몇 있으며, 品目に 있어서도 누락된 곳이 있다. 《高僧傳·慧嚴傳》에서 「大涅槃經이 初에 宋土(劉宋)에 왔는데, 文言이 좋고 品數는 영성하고 간단하여, 처음 배우는데 있어서 품에 두기가 어렵다」(大涅槃經初至宋土, 文言致善而品數疏簡, 初學難以厝懷)라고 말하고 있다. 그리하여 元嘉 8년에 謝靈運은 慧嚴、慧觀과 같이 연구와 습득을 쉽게 하기 위하여 北本 《大涅槃經》을 개정하였다. 謝靈運 등의 수정은 品目的 調整과 文字의 윤색에 중점을 두었는데, 北本과 南本の 改易 對比를 통해<sup>6)</sup>, 南本이 정확한 개념과 범주를 운용하고, 분명하고 쉬운 문자를 많이 사용했다. 예를 들어 唐 元康의 《肇論疏》卷上序에서 「謝靈運 문장의 수려함은 고금을 뛰어넘는데, 《涅槃》같은 것은 원래 질박하여, 本言에서는 「手把脚踏, 得到彼岸」(손으로 다리를 잡고 뛰고, 저 언덕을 얻는다)이라고 하였지만, 謝公은 「運手動足, 截流而度」(손과 발을 움직여, 물 흐르는 것을 마디로 끊어 보낸다)로 바꾸어 말했다」(謝靈運文章秀發, 超邁古今, 如《涅槃》元來質朴, 本言「手把脚踏, 得到彼岸」, 謝公改云「運手動足, 截流而度」)하고 있다. 謝靈運의 이번 개정은 언어가 더욱더平易하고, 聲韻 역시 더욱더 생기가 있어, 佛經翻譯에 있어서 平易理論의 정수를 취했다고 말할 수 있다. 劉宋에서 《大涅槃經》유행으로 인해 涅槃學이 南朝佛學의 주류 학설로 되었는데, 謝靈運 등이 진행한 北本 개정과 매우 큰 관계가 있다.

佛敎의 平易文風에 대한 謝靈運의 실천은 그의 《十四音訓敍》에서도 잘 나타나는데, 그는 梵漢文의 音을 분석하고 식별하였다. 《高僧傳·慧睿傳》에서 「陳郡 謝靈運은 佛理를 애호했는데, 다른 음에 대하여, 이해하는 바가 많아, 睿에게 자문을 받아 經안에 있는 여러 글자, 여러 음, 서로 다른 요지를 병렬하여, 《十四音訓敍》를 저술하였으며, 梵漢을 조목조목 열거하여, 분명히 하고, 문자로 하여금 근거가 있게 하였다」(陳郡謝靈運篤好佛理, 殊俗之音, 多所達解. 乃咨睿以經中諸字並衆音異旨, 於是著《十四音

6) 孫述圻著, <謝靈運與南本《大般涅槃經》>, 《南京大學學報》 第1期. 1983.

訓敎》, 條例梵漢, 昭然可了, 使文字有據焉)이라고 했다. 梵文의 「十四音」에 대한 지식은 《大涅槃經》北本 8권 <如來性品> 및 南本 8권 <文字品>에 나타나는데, 謝靈運은 北本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이러한 지식에 접촉하고, 慧叟에게 자문을 구하며 학습했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慧叟는 일찍이 「여러 나라를 다녔고, 남으로 천축 경계 까지 갔었는데, 誥訓을 音譯하고, 異域의 서로 다른 뜻을 알지 못 하는 것이 없다」(游歷諸國, 乃至南天竺界, 音譯誥訓, 殊方異義, 無不必曉)(《高僧傳·慧叟傳》)했기 때문이다. 梵漢文의 音과 義에 대한 비교연구는 佛經翻譯에 있어서 뜻의 表達과 文사의 유창함에 유리하게 작용되어 「아름다움과 울창한 것을 잃는 다」(失其藻蔚), 「문체와는 실로 격을 둔 다」(殊隔文體)(《高僧傳·鳩摩羅什傳》)와 같은 상황을 모면 했을 뿐 만 아니라, 佛經翻譯을 하는데 있어서 언어의 聲韻和諧에도 큰 도움을 주었다.

謝靈運이 佛敎의 平易文風에 대한 추진은 그의 佛敎世俗化운동에서도 나타난다. 그는 <辨宗論>을 지어 竺道生의 頓悟說을 지지했다. 《出三藏記集》12권 陸澄의 《法論》목록에 「<辨宗論>, 謝靈運」이라고 쓰고 있고, 뒷면에 法勳、僧維、慧麟、竺法綱、慧林、王休元이 謝靈運과 주고받은 문답을 기재하고 있으며, 주석하여 「謝康樂 靈運 <辨宗>은 頓悟를 신술 한다」(謝康樂靈運<辨宗>述頓悟)라고 밝히고 있다. 謝靈運의 <辨宗論>은 頓悟說이 제창된 초기에 상당히 큰 지지 역할을 하였다. 頓悟說 유행에 대한 그의 공헌은 대단히 크며, 게다가 淨土信仰者이었다. 譯經、辨音、頓悟의 申述、淨土信奉 등 일련의 활동에서 나타나듯이, 謝靈運은 佛敎世俗化를 적극적으로 실천하고 추진시켰던 문인이다. 이러한 배경이 謝靈運으로 하여금 文學創作중에서 자연스레 佛敎의 平易文風을 갖추게 되었다. 鮑照가 謝詩를 「처음에 발한 芙蓉 같고, 자연스럽고 사랑스럽다」(如初發芙蓉, 自然可愛)(《南史·顏延之傳》)하고, 蕭綱은 謝詩를 「뱀는 말이 하늘로 솟으니, 자연에서 나온 다」(吐言天拔, 出於自然)(《南史·庾易傳》)이라고 했으며, 또한 「백운이 그윽한 돌을 안고, 파릇한 귀리가 맑은 물결을 매혹 시킨다」(白雲抱幽石, 綠菝媚清漣)(《過始寧壁》), 「구름 속에 있는 해

가 서로 비추고, 공중에 떠 있는 물은 맑고 신선하다」(雲日相輝映, 空水共澄鮮) (<登江中孤嶼>), 「봄에 녹음이 짙고 벌판은 수려하며, 높이 걸려 있는 하얀 구름이 머물고 있다」(春滿綠野秀, 巖高白雲屯) (<入彭蠡湖口>), 「연못에 春草가 생기고, 정원의 버드나무위에 금수가 운다」(池塘生春草, 園柳變鳴禽) (<登池上樓>), 「벌판은 적고 언덕은 깨끗하고, 하늘은 높고 가을 달이 밝다」(野曠少岸淨, 天高秋月明) (<初去郡>) 등과 같은 예를 들었다. 謝靈運의 詩歌風格은 劉宋의 어렵고 典雅하고 심오한 文風중에서 유독 平易하고 자연스러움으로 뛰어났는데, 佛敎의 平易文風의 영향을 받은 것이 틀림없다. 《宋書·謝靈運傳》에서 그가 관직을 그만두고 始寧에 거할 때, 「매번 시가 도읍에 오면, 귀천을 막론하고 서로 경주하듯이 베껴 쓰며, 잠깐 사이에, 서민들이 모두 퍼내니, 먼곳이나 가까운 곳이나 흠모 하여, 이름이 경사를 움직였다」(每有一詩至都邑, 貴賤莫不競寫, 宿昔之間, 土庶皆編, 遠近欽慕, 名動京師)했다고 쓰고 있는데, 「貴賤競寫」, 「土庶皆編」라고 한 것은 그의 詩에서 나타난 平易詩風과 관계가 있는 것이다.

謝詩는 聲律에서도 세밀하고 정제된 작품이 있는데, 《四溟詩話》에서 「靈運에 이르러 古律이 반이나 이루어졌고, 謝朓에 이르러 전부 律이 되었다」(及靈運古律相半, 至謝朓全爲律矣)<sup>7)</sup>라고 말했다. 《詩藪》에서는 또 「謝、陸이 화려함을 더하니, 唐律의 선례이다」(謝、陸之增而華也, 唐律之先兆也)<sup>8)</sup>라고 말하고 있는데, 謝靈運 詩의 聲律特徵을 지적하고 있다. 《柳亭詩話》에서는 예를 들어 「謝靈運의 「銅陵映碧澗, 石墜瀉紅泉」은 성조가 짜임새 있고 유창하니, 近體의 앞에 있는 것이 아닌가?」(謝靈運之「銅陵映碧澗, 石墜瀉紅泉」圓穩流利, 非近體之前茅乎)<sup>9)</sup>라고 하고, 또 「蘋荇泛沈沈, 菰蒲冒清淺」과 같은 구는 앞 句가 雙聲疊韻이고, 아래 句는 疊韻雙聲이다. 이런 것들로부터, 謝靈運의 聲律에 대한 의식 있는 배합을 볼 수 있는데, 翁方綱은 이에 관하여 「謝詩는 뽀뽀하고 아름다우며, 그 仄仄은

7) 丁保福輯: 《歷代詩話續編》, 中華書局 1983年, 1153쪽.

8) 明胡應麟: 《詩藪》, 上海古籍出版社 1958年, 29쪽.

9) 鍾優民: 《謝靈運論稿》, 齊魯書社 1985年, 253쪽에서 인용.

모두 막아 가림과 뒤돌아봄에서 나온 다」(謝詩密麗, 其平仄皆於掩映顧盼出之)<sup>10)</sup>(《五言詩平仄舉偶》)라고 말했다. 謝靈運의 詩歌는 이미 언어의 韻律和諧美를 추구하기 시작했고, 永明聲律 新變의 선례를 열었다. 焦竑 《謝康樂集題辭》에서 「색채가 순백인 것을 사용하는 것을 버리고, 배가 기이함을 위해 경주 하듯이 한 다; 질박한 음을 떠나, 궁상을 묘하도록 말긴다」(謝詩)棄淳白之用, 而競舟騰之奇; 離質木之音, 而任宮商之巧)<sup>11)</sup>라고 말한 것과 같다. 謝詩의 이 특징은 그가 梵漢文 聲韻 연구에 대한 영향을 분명히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皎然이 「지은 바의 詩는 發하면 모두 極致에 이르니, 王의 道가 도와주는 것이 아닌가?」(所作詩, 發皆造極, 得非空王之道助耶?)<sup>12)</sup>라고 논 한 것처럼, 謝靈運 문학창작에 대한 佛敎學風의 영향을 분명히 지적하고 있다.

이밖에 吳歌西曲이 비록 劉宋에서 유행하였지만, 소수의 사인들에 의해 중시 받았는데, 顏延之는 湯惠休의 擬作에 대하여 비평을 가하였다. 《樂府詩集》에 謝靈運의 擬作인 《東陽溪中贈答》한 편을 실고 있는 것을 보아서, 그가 寒門의 풍조를 이미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것인데, 이것은 그 당시 士族階層에서는 보기 드문 현상으로, 永明新風의 先例를 열었다고 간주 할 수 있다.

佛敎의 平易文風 영향 하에서 謝靈運의 創作은 劉宋時期 문학창작에 잠재하고 있던 趣向을 대변 하고 있다. 元嘉文壇의 또 다른 대표 격인 顏延之는 창작에서 典雅重拙을 숭상하였으나, 陶潛詩文의 「문을 취하여 취지에 달 한다」(文取指達)(《陶徵士誄序》)하고, 명확하고 유창하며 자연스러운 특징에 대한 충분한 긍정은 이 잠재하고 있던 취향이 당시의 문인들 관념 중에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었음을 설명해 주고 있다<sup>13)</sup>.

10) 《魏晉南北朝詩精品》에서 인용, 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 1995年, 255쪽.

11) 李運富編 《謝靈運集》附錄 참고, 岳麓書社 1999年, 436쪽.

12) 清何文煥 《歷代詩話·詩式》, 中華書局 1981年, 29쪽.

13) 按: 顏延之는 본래 崇佛했다. 그가 道生에게 道에 관하여 묻고(《高僧傳·道生傳》), 求那跋 陀羅가 建康에 온 후에, 그는 「허리띠를 차고 방문했다」(東帶造門)하고, 「더욱더 깊이 숭상하고 공경했다」(深加崇敬)(《高僧傳·求那跋陀羅

위의 분석에서, 佛敎의 平易文風영향 아래에 있었던 謝靈運의 創作은 沈約 「三易」說의 선례가 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謝靈運의 創作風格은 永明時期의 謝朓、沈約에게 심원한 영향을 끼쳤는데, 小謝詩風이 바로 大謝의 詩風을 이어 「圓美流轉」할 수 있었고, 沈約이 《宋書·謝靈運傳》에서 「三易」說을 제기한 기본 사상 또한 平易文風을 긍정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 2. 永明文風과 佛學易風

佛敎의 平易文風 영향을 받은 謝靈運 문학창작이 개인 행위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永明文人들의 文學創作은 집단적 특징을 가지고 있다. 竟陵集團은 文學과 佛學集團으로, 文學創作觀念 發生에 대한 佛敎의 平易文風 影響에 하나의 지렛대를 제공했다.

永明時期에 文學風潮를 이끈 것은 竟陵王 文人團體이다. 「竟陵八友」는 永明文學의 대표이고, 蕭子良이 永明 2년에 西邸를 열었고, 永明 5년에 鷄龍山에 이주한 이후에, 그 주위에 저명한 문인 학자들이 모여들었는데, 竟陵王集團은 이미 당시 문학 창작과 비평의 중심이었다. 동시에 竟陵王集團은 佛法을 적극적으로 널리 알렸기 때문에, 하나의 중요한 佛敎中心이기도 했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는 文學學風이 佛學學風을 흡수하고 융합 하는 데에 유리한 환경을 제공했다.

여기에 중점적으로 지적해야 할 것은, 文字平易과 聲律變化文風에 대한 중시는 竟陵王集團의 佛學學風 중에서 여전히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두 차례에 걸친 전형적인 佛事活動으로부터 이 學風에 대한 竟陵王集團의 제창을 이해할 수 있다.

---

傳》)했으며, 慧琳의 <黑白論>과 李承天의 <達性論>에 대하여도 반박을 제기하였으며, 「두 가지 이론에 반론했는데 각 각 만여 언어였다(駁二論各萬餘言)(《高僧傳·道淵傳》)이었고, 曇無成과 實相에 관하여 논했다(《高僧傳·曇無成傳》). 이처럼 佛學易風이 그에 대하여 영향이 있음이 틀림없다.

그 하나는 竟陵王 永明7年 2月20日에 聲韻에 뛰어난 沙門을 모집하여 經唄 新聲을 제조한 일이었다. 《高僧傳》 13卷 <齊安樂寺釋僧辯傳>에서:

永明 7年 2月 19日, 司徒竟陵文宣王이 꿈에 佛典 앞에서 《維摩》를 읊었는데, 같은 소리를 발하고 깨자, 바로 일어나 불당으로 가, 꿈속에서 불법으로 돌아가, 古 《維摩》一偈를 읊다가, 聲韻이 유창하고 좋음을 느껴, 내일 아침에 경사의 소리에 능한 사문 龍光普智、新安道興、多寶慧忍、天保超勝 및 僧辯等を 결집시켜 소리를 만들었다. 辯은 古 《維摩》一契와 《瑞應》七言 偈一契를 전했는데, 命家の 작품이다(永明七年二月十九日, 司徒竟陵文宣王夢於佛前詠《維摩》一契, 同聲發而覺, 即起至佛堂中, 還如夢中法, 更詠古《維摩》一偈, 便覺韻聲流好, 着工恒日. 明旦即集京師善聲沙門龍光普智、新安道興、多寶慧忍、天保超勝及僧辯等, 集第作聲. 辯傳古《維摩》一契, 《瑞應》七言偈一契, 最是命家之作)

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대규모의 「考文審音」활동으로, 이번 검증을 통해 佛經誦讀의 聲韻理論問題가 이미 정식으로 확정되었다. 陳寅恪선생이 말한 것처럼, 經唄 新聲의 제조는 비록 永明7年の 일이었지만, 「이 보다 앞선 때에, 音을 심의하는 문사 및 소리에 능한 建康 沙門들의 토론과 연구가 많았고 또한 정통했다. 永明 7年 竟陵 京邸에서의 결집은 이 새로운 학설의 연구 성적에 대한 발표일 뿐 이다」(此略前之時, 建康之審音文士及善聲沙門討論研求必已甚衆而且精. 永明七年竟陵京邸之結集, 不過此新學說研求成積之發表耳)<sup>14)</sup>라고 했다. 《高僧傳》에 실린 轉讀과 梵唄에 능한 高僧들의 상황으로 볼 때, 「建康 經唄의 소리는 실로 宋의 中世부터 시작되다가, 齊의 初年에 極에 달했다」(建康經唄之聲, 實始自宋之中世, 而極於齊之初年)<sup>15)</sup>이라고 했다. 蕭子良은 永明7年 전에도 轉讀에 익숙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꿈속에서 읊을 수 있었을까? 또 《出三藏記集》12권의 <齊

14) 陳寅恪: <四聲三問>, 《金明館叢稿初編》, 三聯書店 2001年, 368쪽.

15) 同注14, 373쪽.

太宰竟陵文宣王法集目錄>에 「與何祭酒書贊去滋味一卷. 贊梵唄偈文一卷. 梵唄書一卷. 轉讀法並釋滯一卷」이라고 기재하고 있다. 또 同卷 <齊竟陵王世子撫軍巴陵王法集目錄>에 <經聲賦>라고 기재하고 있다. 竟陵集團이 轉讀, 梵唄에 대하여 이론과 실천을 중시 하였다. 竟陵왕의 經唄新聲 제조의 목적은 佛經誦讀의 「韻聲流好」(성운의 유창과 좋음)에 있는데, 이전 佛經의 轉讀 風格은 소리에 능한 자들 사이에서 약간 다르다. 어떤 이는 「聲韻이 맑고 우아하다」(聲韻清雅)(《高僧傳·法平傳》), 어떤 이는 「은화하고 고상하며 음률이 높다」(和雅哀亮)(《高僧傳·僧饒傳》), 어떤 이는 「자연의 소리를 부여 받았다」(稟自然之聲)(《高僧傳·道慧傳》), 어떤 이는 「소리가 풍성하고 음률이 높다」(豐聲而高調)(《高僧傳·智宗傳》)이라고 했다. 轉讀의 방법은 하나이나, 풍격에 있어서 여러 차이를 보이고 있다. 竟陵왕이 여러 經師를 결집한 것은 「옛날의 소리를 의논하고, 작품의 새롭고 기이한 것을 설명 한다」(斟酌舊聲, 詮品新異)(《高僧傳·慧忍傳》)를 위함으로, 轉讀準則이 확정되자, 여러 무리가 따랐다. 釋 慧忍의 方法이 「韻聲流好」(성운의 유창과 좋음)풍격 체제에 부합되어, 蕭子良은 그가 「얻은 바가 가장 뛰어나고 묘하다」(所得最爲長妙)라고 여겼고, 나머지 승인 40여명에게 慧忍을 따라 修學하라고 명했는데 永明의 審音은 「易誦讀」을 추구하는 목적이 분명히 있음을 알 수 있다.

또 다른 하나는 永明 7年 10月 蕭子良의 제창 하에 佛經에 대하여 번잡함을 삭제하고 간략함을 취했던 대규모 활동이다. 《出三藏記集·略成實論記》에 기재하길:

齊永明 7年 10月, 文宣王이 처음으로 경사의 석학 명승 500여 명을 결집시켜, 定林僧柔, 謝寺慧次法師가 普弘寺에서 번갈아 강론하길 청하고, 심오함을 정밀하게 조사하고, 의문은 학문으로 통하게 하였다. 자리에 앉아 여전히 祐 및 安樂智를 청하여 법사라 칭하고, 스님 무리 二部 名德 700인을 결집시켜, 通律을 속강하게 하였고, 四衆(比丘, 比丘尼, 優婆塞, 優婆夷)의 淨業을 志念 하여 白으로 돌아오게 했다. 공은 매번 大乘經의 근원이 깊었기 때문에, 도가 빠진 요점은 불법의 중요관건으로 올바르게

했다. 근세의 陵이 폐한 것은 재촉하여 수리하지 말게 하고, 근본을 버리고 말을 좇지도 말지며, 공을 읽고 논은 번잡하다. 고로 律座에서 柔、次等 여러 論師들이 《成實》을 베끼어, 번한 것을 간략하고 요점을 존재케 하여, 약 9권으로 하고, 辭를 간략하고 줄여 이치를 들게 함으로써 연구에 쉽게 한다(齊永明七年十月, 文宣王初集京師碩學名僧五百餘人, 請定林僧柔、謝寺慧次法師於普弘寺迭講, 欲使研核幽微, 學通疑執. 卽座仍請祐及安樂智稱法師, 更集尼衆二部名德七百餘人, 續講十誦律, 志念四衆淨業還白. 公每以大乘經淵深, 漏道之津涯, 正法之樞紐 而近世陵廢, 莫或敦修, 棄本逐末, 喪功繁論. 故卽於律座, 令柔次等諸論師抄比《成實》, 簡繁存要, 略爲九卷, 使辭約理舉, 易以研尋)

라고 하고 있다.

이것은 佛經의 平易文風을 제창한 修繕활동이었다. 《成實論》은 원래 202品, 16卷으로 卷帙이 번잡하여 研究하고 翫得하기에 어려웠다. 周顒이 「그 책은 정밀한 이치를 말하고, 사색하는 맛에 쉽게 탐하게 되어, 쟁론의 흐름에 발을 디디어, 다시 연구하는데 서로 발을 들여놓는다. 책은 넓고 뜻은 번잡하니, 공을 이루는데 다 하기가 어려워, 고로 아득하여 가서 돌지 않으면 중국에는 올바른 임무를 방해한다」(其書言精理, 思味易耽, 頃遂赴蹈爭流, 重趼相躡. 又卷廣義繁, 致功難盡, 故復往不旋終妨正務)라고 한 것과 같은데, 그리하여 삭제하여 간략하게 해야만 했다. 修繕의 목적은 「使辭約理舉, 易以研尋」(문사를 줄이고 이치를 들어내어 研求하기 쉽게 한다)에 있다. 「易以研尋」(연구하기 쉽게 한다)하려면, 「문을 수정하는 것은 간단하게 줄이는 것에 있다」(刊文在約)하고, 「사치스러움을 삭제하고 요점을 취 한다」(刪除采要)하여 「학자의 번거로움을 반이나 덜어 낸다」(學者之煩半遣)<sup>16)</sup>하도록 해야 하는데, 佛文에 대한 簡約과 平易 처리는 대단히 중요한 것으로, 이번 집회의 목적으로부터 竟陵集團의 불학연구에 대한 簡易學風을 이해 할 수 있다.

永明 7年の 이 두 차례 佛事活動은 佛敎平易文風에 대한 竟陵集團의 중

16) <抄成實論序>, 《出三藏記集》 11卷.

시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두 차례의 활동에 참여한 道俗者가 수천에 달하고, 竟陵八友 및 西邸의 賓僚 대부분이 집회에 참가했다. 竟陵集團 내에서 이러한 유사한 활동은 많았다.

竟陵集團 文人の 創作도 집단적 특색을 가지고 있다. 《南史·虞羲傳》에서는 「竟陵王子良이 일찍 밤에 학사를 모여 놓고, 밀랍을 새겨 시를 짓게 했는데, 네 가지 운 마다 한 마디를 짚게 하여, 이것을 따르도록 했다. 文琰이 한 마디 초를 태워 네 가지 운이 있는 시를 이룬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가? 라고 말했다. 令楷、江洪等과 더불어 銅鉢을 쳐 운을 세우니, 울림이 없어지자 시가 이루어져, 모두 관람할 수가 있었다」(竟陵王子良嘗夜集學士, 刻燭爲詩, 四韻者則刻一寸, 以此爲率. 文琰曰「頓燒一寸燭, 而成四韻詩, 何難之有?」乃與令楷、江洪等共同打銅鉢立韻, 響滅則詩成, 皆可以觀覽)이라고 쓰고 있다. 단체적인 詩賦創作은 집단 내에서 자주 있는 일이었다. 예를 들어 王融、沈約、范雲、苜炎、劉繪 등의 <餞謝文學離夜詩>, 王融、沈約、謝朓 등의 <同詠樂器>, 王融、柳惲、虞炎、謝朓 등의 <同詠坐上所見一物>, 王融、范雲의 <四色詩> 등은 모두가 같은 제목으로 읊은 작품들이다. 《謝朓集》에서는 <阻雪連句遙贈和>詩가 있는데, 謝朓、江革、王融、王僧孺、謝昊、劉繪、沈約 등이 句를 연이어 지은 것이다. 또 《南齊書·樂志》에서는 「<永平樂歌>는 竟陵王子良이 여러문사와 함께 지은 것이다. 사람들은 열 개 曲을 했다. 道人釋寶月은 문사가 대단히 아름답다고 하였는데, 위에서 관현으로 연주하게 했으나, 樂官에는 나열되지 않았다」(<永平樂歌>者, 竟陵王子良與諸文士造奏之. 人爲十曲. 道人釋寶月辭頗美, 上常被之管弦, 而不列於樂官也)라고 하고 있는데, 이 기록은 竟陵集團의 文學活動에 僧俗 모두가 참여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알려주고 있다. 竟陵集團 중에서 文學과 佛學、文士와 僧人들 간의 융합은 佛教文風과 文學文風의 융합을 가능하게 만들었고, 더 이상 개인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집단에 국한되었다.

創作活動의 群體式 참여방식은 藝術風格의 類似性 내지 同一性을 초래했다. 竟陵集團의 文人創作에서 平易流暢한 공통적인 특징을 발견 할 수

있고, 게다가 많은 문사들이 聲律을 잘 운용했다. 《南齊書·劉繪傳》에서 「그 때 張融、周顒은 언어가 세밀했고, 融은 음운이 緩慢하고, 顒은 문사가 화려하고 빠르며, 繪는 언어를 벨는데, 갑자기 세력이 꺾기면서도 풍치가 있다」(時張融、周顒並有言工, 融音旨緩韻, 顒辭致綺捷. 繪之言吐, 又頓挫有風氣)라고 말했고, <周顒傳>에서도 「顒의 音辭와 문체가 아름답고, 나오는 언어는 無窮하며, 宮商은 주홍빛이고, 입으로부터 發하면 나오면 句를 이룬 다」(顒音辭辯麗, 出言不窮, 宮商朱紫, 發口成句)라고 했으며, 張融은 자기 자신의 문장을 「음을 전하는데 뛰어나고, 소리를 올리는데 韻이 우뚝 솟는 다」(傳音振逸, 鳴節竦韻), 「홀로 신비하고 유독 뛰어나다」(頗有孤神獨逸)(《南齊書·張融傳》)이라고 했다. 周顒、張融、劉繪의 聲律에 대한 증시는 이미 佛敎의 「의미는 정감과 영혼을 뺀고, 언어는 기이하고 성을 적 이다」(義奪情靈, 言詭聲律)<sup>17)</sup>특징을 그들의 言談과 作文에 도입했다고 말 할 수 있다. 이처럼 佛學易風은 永明의 平易文風을 촉진시켰으며, 또한 「三易」說 제기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 3. 沈約과 三易說

「三易」說은 沈約에 의해 총결되고 제기된 것으로, 그가 「一代詞宗」(《南史·任昉傳》)이라는 신분과도 관계가 있다. 沈約이 三易原則을 제기 한 것은 당시 文風에 대한 총결인 동시에 제창과 보급이기도 하다. 沈約은 문단의 지도자로서, 후진 양성에 힘썼는데, 齊梁의 저명한 문인들 중에서 그의 장려와 발탁을 받지 않은 자가 없을 정도였다. 예를 들어, 그는 謝朓、何遜、吳均、王筠、陸倕、顧協 등의 문인들에 대하여 매우 높은 평가를 하였다. 그는 謝朓의 「好詩圓美流轉如彈丸」주장을 추앙하였는데, 왜냐하면 이 주장이 그가 제창한 三易 정신과 일치되기 때문이다; 그가 吳均을 과찬하는 동시에, 또 그의 詩를 「秋風瀧白水, 雁足印黃沙」라고 비평하

17) <重答張融書難門律>, 《弘明集》 6卷.

면서, 「印黃沙」가 「太險」하다고 했는데, 소위 「太險」이라 함은 바로 충분히 자연스럽지 못 하여, 송독하여보니 유창하게 읽혀지지 않다는 뜻이다; 그가 何遜의 詩를 읽고, 「하루에 세 번이나 반복해도, 여전히 끝날 수가 없다」(一日三復, 猶不能已) (《梁書·何遜傳》)이라고 했는데, 何遜의 시가 바로 「소묘를 숭상하고, 전고사용을 섬기지 않으며, 정감을 쓰고 경치를 묘사하는데 있어서, 구르며 맑고 그윽하다」(尙白描, 不事用典, 寫情狀景, 宛轉清幽)<sup>18)</sup>에 있기 때문이다; 王筠에 대하여는 그의 詩가 「실로 아름답고 전아하며, 聲韻의 화합이 지면을 덮고, 빛 그림자가 글자에 찬다」(實爲麗則, 聲和被紙, 光影盈字) (《梁書·何遜傳》)라고 칭찬했다. 沈約의 이 같은 행위에서 그가 제창한 「三易」원칙을 추진하고자 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永明文人의 創作實踐으로 보아서, 「三易」원칙은 공동으로 따르는 創作原則이다. 佛教世俗化의 審美俗尙에 대한 추진으로 인해, 平易風潮가 永明文人의 심미적인 추구로 되어 지는데, 關鍵적인 역할을 하였다.

沈約이 「三易」說을 제기한 것은 이 이론 형성에 유리한 문화적인 환경 이외에도, 그 자신의 문화적인 배경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먼저 「一代詞宗」인 沈約에게는 심후한 불학 배경이 있는데, 이것이 沈約의 「三易」說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佛教의 平易思想을 빌리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었다. 沈約의 선조는 天師道를 신봉하였기 때문에, 도가사상의 영향을 받았고, 도교를 줄곧 신봉하였다. 그러나 永明시기에 文惠太子、竟陵王 蕭子良이 佛教를 크게 제창하자, 「竟陵八友」의 하나인 그도 佛教에 대하여 열중하게 되었고, 佛事에 참여하여 佛教를 보호하는 논문을 쓰기도 했으며, 특히 永明期間에 范縝과의 論辯에 있어서, 沈約은 일련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썼고, 東陽에 부임할 때는 釋 慧約을 데리고 가 같이 동거하기도 했다. 梁에 들어간 이후에, 梁武帝가 도교를 버리고 佛教에 歸依하자, 沈約은 佛教에 더욱더 열중하였는데, 불학에 관한 문장을 대부분 이 시기에 썼다.

18) 曹道衡、沈玉成: 《南北朝文學史》, 人民文學出版社 1991년, 203쪽.

沈約의 불학배경에 대하여 두 가지 자료를 통하여 명확하게 인식할 수 있다. 그 하나는 名僧과의 왕래이다. 현존하는 자료를 통하여, 永明시기에 沈約이 많은 승인들과 왕래를 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續高僧傳·慧約傳》에서 「少傅 沈約이 隆昌에 부임하러 가는데, 데리고 동행하였다. 郡에서 정막 함으로 스스로를 위안했다. 禪을 숭독하는 것으로 즐거움을 삼았다…… 沈侯가 郡에서 罷하게 되자, 데리고 도읍으로 나와, 本寺에 돌아왔다. 일을 하는데 부지런 하고 엄숙하며, 禮로 공경하는데 더더욱 융숭하고, 문장을 주고받으며, 서로 그림자가 빠지지 않게 서로 이어졌는데, 沈의 詞藻가 우월했기 때문에, 당시에 빼어나다고 이름이 났다. 관직에 취임하면, 관아에서 반드시 동거했다.(少傅沈約, 隆昌中外任, 携與同行. 在郡惟以靜漠自娛. 禪誦爲樂……及沈侯罷郡, 相携出都, 還往本寺. 恭事勤肅, 禮敬彌隆, 文章往復, 相繼晷漏, 以沈詞藻之盛, 秀出當時. 臨官涖職, 必同居府舍)라고 하고 있다. 두 사람이 「文章往復」하고, 또 「同居府舍」한 것으로 보아, 沈約과 慧約의 관계가 보통이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또 《續高僧傳·法獻傳》에서 「獻이 建武末년에 卒하자……獻의 제자 僧祐가 墓側에 碑를 만들었고, 丹陽尹 吳興 沈約이 문장을 지었다(獻以建武末年卒……獻弟子僧祐爲造碑墓側, 丹陽尹吳興沈約制文)이라고 했는데, 沈約이 法獻을 위하여 비문을 제작한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교제는 당연한 것이었다. 또 《續高僧傳·法雲傳》에서는 「中書郎 順陽范이 <神滅論>을 저작하였다……靈은 朝士와 서신을 주고받으며 논했는데, 문체가 비록 다르지만, 논의는 통했고, 또 少傅 沈約과 서신을 주고받아 말하길: ……約이 답하여 말하길:……(中書郎順陽范 著<神滅論>……雲乃遍與朝士書論之, 文采雖異, 而論義倫通, 又與少傅沈約書曰: ……約答曰:……)이라고 하고 있는데, 두 사람의 書論은 《弘明集》에 현존하고 있다. 다른 하나는 그가 쓴 불학에 관한 문장이다. 현재 고증된 것으로는 <答釋法雲難范續神滅論>, <均聖論>, <答陶隱居難均聖論>, <究竟慈悲論>, <論形神>, <神不滅論>, <難范續神滅論>, <述僧設會論>, <述僧設會食論>, <內典序>, <佛記序>, <佛知不異衆生知義>, <六道相續作佛義>, <因緣義>, <千佛頌>, <彌勒

贊>, <瑞石像銘>, <光宅寺刹下銘>, <彌陀佛銘>, <釋迦文佛像銘>, <長西禪精舍銘>, <比丘尼僧敬法師碑>, <南齊禪林寺尼淨秀行狀>, <懺悔文>, <千僧會願文>, <舍身願疏>, <奉阿育王寺錢啓>, <與約法師書> 등이 있는데, 이들 論著로부터 불학에 대한 沈約의 열정과 수양을 알 수 있다. 그래서 沈約의 「三易」說은 佛教文風의 유익한 성분을 흡수한 것이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그 다음은 沈約의 文學史家的인 안목으로, 이것이 그가 佛教文風을 빌리어 「三易」說을 제기한 관건이다. 沈約은 「一代詞宗」일 뿐만 아니라 또한 사학가이다. 《梁書·沈約傳》에 「所著《晉書》百一十卷, 《宋書》百卷, 《齊記》二十卷, 《高祖紀》十四卷」이라고 하고 있다. 안타까운 것은 《宋書》이외에 그 나머지 저작은 모두 실전되었다. 《宋書》의 편찬은 《宋書·自序》에 「永明 5년 봄에, 勅을 받아 《宋書》를 지었다. 6년 2월에 다 마치고, 表를 올렸다」(永明五年春, 又被勅撰《宋書》. 六年二月畢功, 表上之)라고 기록하고 있다. 《宋書》에서 沈約은 史實을 논 했을 뿐만 아니라, 문학의 역사적인 발전에 대하여도 정밀하고 심도 있는 논술을 하였던 바, 이것은 《宋書·謝靈運傳》에 잘 나타나 있다.

《宋書·謝靈運傳》은 文學簡略史로 비유되는데, 先秦에서 劉宋까지의 문학발전 과정을 개괄적으로 서술하였고, 중요한 작가와 문학현상에 대하여 평론하였다. 그중에서 沈約의 문학발전 규율에 대한 총결은 그의 「三易」이론 형성에 대하여 매우 큰 영향을 끼쳤는데, 이것은 두 가지 면에서 잘 나타난다. 하나는 文學本源에 대한 그의 견해이다. 《宋書·謝靈運傳》에서 「사람은 천지의 靈氣를 부여 받아, 水、木、金、土 다섯 가지 德性을 포함하고 있다. 剛이 있고 柔가 있으며, 喜가 있고 怒가 있다. 사상 감정이 胸中에서 움직이니, 歌詠이 發한다. 이것이 風、賦、比、興、雅、頌의 緣起인데, 詩經이 나온 근원이다. 높게 부르고 낮게 읊으니, 시가가 번성한다. 비록 虞夏이전의 남아있는 문장을 볼 수 없으나, 천지가 사람에게 부여한 영묘한 심기는 道理에 비추어 보면 다를 바가 없다. 詩歌의 興起는 生民이 있을 때부터 이다」(民稟天地之靈, 含五常之德, 剛柔迭用, 喜慍

分情. 夫志動於中, 則歌詠外發. 六義所因, 四始攸繫, 升降謳謠, 紛披風什. 雖虞夏以前, 遺文不睹, 稟氣懷靈, 理無或異. 然則歌詠所興, 宜自生民始也)라고 하고 있다. 沈約은 문장의 歌詠이 사상 감정의 外現이고, 이것은 사람의 본성으로 인한 것으로, 인류가 출현되자 문학도 나온 것이라고 여기고 있다. 이것은 《文心雕龍·原道》에서 「문장의 德은 위대 하도다, 천지와 함께 생성된 것인데 어찌 그런가?」(文之爲德也大矣, 與天地並生者何哉)라고 말한 것과 같은 뜻인데, 문학 관념은 傳道言志에서 벗어나 抒情으로 가는 것으로, 바로 文學獨立意識의 표현이다. 沈約의 「三易」창작원칙은 문학자체의 형식에 대하여 논한 것으로, 바로 이러한 문학관이 결정한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文變사상이다. 沈約은 문학발전사의 기술에 있어서 「變」을 중시하였는데, 앞에서 말한 것처럼, 그는 南齊以前的 문학역사를 先秦、兩晉 및 宋 등 몇 개의 시기로 나누어, 매 시기에 대하여 그 文變 規律을 지적하였다. 先秦문학은 虞夏에서 周、戰國까지, 그 발전 規律은 「文은 情 때문에 변한다」(文以情變)이라고 했다. 漢魏문학은 「문체가 세 번 변한다」(文體三變)로 그 발전 역사를 개괄하였는데, 즉 「司馬相如是 景物 묘사에 뛰어나고, 班固는 인정과 도리에 뛰어나며, 子建(曹植)、仲宣(王粲)은 개성으로 서로 다른 풍격을 이루었고, 재능을 나타내고 장점을 갖추어, 당시의 문단을 유독 비쳤다」(相如巧爲形似之言, 班固長於情理之說, 子建、仲宣以氣質爲體, 並標能擅美, 獨映當時)라고 하였다. 晉에서 宋初까지의 문학 역시 三變이 있다: 西晉은 「聲律은 班固와 賈誼와 다르다」(律異班、賈, 體變曹、王)이고; 東晉은 「현풍이 유독 성행한다」(玄風獨振)이며; 宋初는 「殷仲文은 孫綽、許詢의 玄言詩風을 바꾸었고, 謝混은 太元시기의 道學의 풍치를 크게 바꾸었다」(仲文始革孫、許之風, 叔源大變太元之氣)이다. 문학의 발전 변화는 역사적인 필연으로, 변화의 원동력을 沈約은 「감상과 애호의 정취가 다르다」(賞好異情)이라고 귀결했는데, 바로 각 시기의 문학 숭상, 심미적인 정취의 다름이 문학창작 풍조의 변화를 야기한다는 것이다 라고 했다. 이러한 발전규율에 따라서, 永明문학이 성과를 갖기 위해서는 당연히 변화가 있어야 했다. 그러면, 永明문학을 변화시키

는 심미적인 정취는 무엇인가? 이것이 바로 沈約이 직면한 문제이었다. 만약에 佛敎文化의 시각에서 살펴보면, 言語의 平易、聲韻의 流暢이 심미적인 風尙의 소재이고, 그리고 이러한 심미적인 풍상이 竟陵集團 내에서 주도적인 위치를 점유하였다. 그리하여 沈約의 永明 欲變文風은 이론적으로 이 심미적인 풍상의 합리적인 요소를 섭취하게 되었는데, 「三易」說이 바로 시대문화풍상에 순응하여 나타난 산물인 것이다.

#### IV. 結 論

「三易」說은 顏之推의 《顏氏家訓·文章篇》에 보이는데, 沈約의 文集에는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顏之推가 기록한 沈約의 말은 依託할 만하고, 그 신뢰도에 관하여도 의심 할 필요가 없다. 「三易」說은 沈約이 永明年間에 제기한 것으로, 永明文風을 지도하는 강령적인 이론이었다.

「三易」이라 함은 「易見事、易識字、易誦讀」세 가지를 가리키는데, 「三易」說의 핵심이 바로 「易」자에 있다. 「易」을 直解하면 「容易」의 뜻이지만, 「三易」說에서의 그 뜻은 훨씬 더 풍부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沈約의 「三易」說 제기는 당시의 불량한 文風에 대하여 느낀 바가 있어 發 한 것이고, 또한 그의 新變 취향을 반영하는 것이다. 즉, 그 당시의 문풍은 元嘉文風의 典正하고 단조로운 테두리에서 벗어나, 쉽고 유창하며 말하듯이 명백한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었다. 沈約의 「三易」說은 이 창작 풍조에 적응하여 제기된 창작원칙이고, 매우 많은 부분에서 당시의 佛學思想으로 부터 전수 받았다.

佛學易風은 佛敎의 世俗化 思潮에 따라 점차적으로 풍미했다. 東晉이후에 佛敎文化의 유행에 따라, 佛敎가 제창한 易風은 宋齊時期的 문화 풍조 형성에 영향을 끼쳤고, 더 나아가 永明의 平易文風을 형성시켰다.

佛敎의 世俗化는 永明 審美 觀念의 俗化를 촉진시켰는데, 平易文風과 簡易學風은 본래 佛敎世俗化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永明世俗化의 심미적인

관념이 바로 平易文風과 簡易學風을 요구하고 있는 바, 「三易」說이 강조하는 平易特徵과 佛學의 平易觀念의 내재적인 일치성이 바로 이점을 설명해 주고 있다. 그래서 佛敎世俗化가 審美觀念에 대한 영향은 「三易」說 제기의 중요한 배경이며, 世俗化 표현의 하나인 佛學易風은 「三易」說의 제기에 더욱더 직접적인 역할을 하였다.

문학이론의 제기는 일시적인 창작실천에 대한 회귀이며, 또한 이론적인 배경을 연역적인 기초로 삼는다. 佛學의 易風은 이 두 가지 면에서 「三易」說의 제기에 역할을 하였다.

「三易」說은 佛敎世俗化가 사인들에게 俗尙이라는 審美觀念을 받아들이는 전제하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 이론형성에 영향을 준 요인은 다방면으로, 그중 가장 중요한 원인중의 하나가 바로 佛敎의 平易文風이다. 佛敎의 平易文風은 謝靈運 創作으로의 침투와 竟陵集團의 文을 숭상하고 佛敎를 제창한문화적 환경이 永明文人들로 하여금 창작에서 불교의 평역문풍을 실천하게 되었고, 「一代詞宗」沈約 자신의 佛學背景和 文學歷史發展規律에 대한 총결이 「三易」說 형성의 중요한 기초가 되었다.

#### < 參考文獻 >

- 北齊·顏之推撰、王利器集解, 《顏氏家訓集解》,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0.  
 梁·蕭統撰、唐·李善注, 《文選》, 上海: 上海古籍出版社, 1986.  
 宋·沈約著, 《宋書》, 臺灣鼎文書局, 1980.  
 唐·李延壽撰, 《南史》, 臺灣鼎文書局, 1980.  
 梁·蕭子顯撰, 《南齊書》, 臺灣鼎文書局, 1980.  
 唐·姚思廉撰, 《梁書》, 臺灣鼎文書局, 1980.  
 唐·李百藥撰, 《北齊書》, 臺灣鼎文書局, 1980.  
 宋·范曄撰、唐李賢等注, 《後漢書》, 臺灣鼎文書局, 1987.  
 梁·劉勰撰、范文瀾注, 《文心雕龍注》, 臺灣學海出版社, 1991.

- 宋·李昉編,《太平廣記》,臺灣新興書局,1987.
- 梁·慧皎著,湯用彤校註,《高僧傳》,中華書局,1992.
- 唐·釋道宣撰,《續高僧傳》,臺灣文殊文化有限公司,1988.
- 梁·僧佑撰,蘇晉仁、蕭鍊子點校,《出三藏記集》,中華書局,1995.
- 梁·僧佑輯,《弘明集》,臺灣中華書局,1978.
- 唐·釋道宣撰,《廣弘明集》,臺灣中華書局,1966.
- 湯用彤著,《湯用彤集》,河北教育出版社,1996.
- 陳寅恪著,《金明館叢稿二編》,三聯書店,2001.
- 清·丁保福輯,《歷代詩話續編》,中華書局,1983.
- 明·胡應麟著,《詩藪》,上海古籍出版社,1958.
- 宋·郭茂倩編纂,《樂府詩集》,臺灣里仁書局,1984.
- 清·嚴可均,《全上古三代秦漢三國六朝文》,臺灣世界書局,1982.
- 鍾優民著,《謝靈運論稿》,齊魯書社,1985.
- 李運富編,《謝靈運集》,岳麓書社,1999.
- 《魏晉南北朝詩精品》,上海社會科學院出版社,1995.
- 清·何文煥,《歷代詩話》,中華書局,1981.
- 曹道衡、沈玉成著,《南北朝文學史》,人民文學出版社,1991.
- 胡適著,《白話文學史》,東方出版社,1996.
- 郁龍餘著,《中印文學關係源流》,湖南文藝出版社,1987.
- 네덜란드 許理和著,《佛教征服中國》,李四龍、裘勇譯,江蘇人民出版社,1998.
- 任繼愈著,《中國佛教史》,中國社會科學出版社,1988.
- 任繼愈著,《中國道教史》,上海人民出版社,1990.
- 潘富恩、馬濤著,《范縝評傳》,南京大學出版社,1996.
- 曹虹著,《慧遠評傳》,南京大學出版社,2002.
- 呂澂著,《印度佛學源流略講》,上海人民出版社,2002.
- 呂澂著,《中國佛學源流略講》,中華書局,1979.
- 方立天著,《佛教哲學》,中國人民大學出版社,2002.

方立天著,《魏晉南北朝佛教論叢》,中華書局 1995.

普慧著,《南朝佛教與文學》,中華書局 2002.

孫述圻著,〈謝靈運與南本大般涅槃經〉,南京大學學報 第1期., 1983.

### <中文提要>

「參易」說由「一代詞人」沈約在永明年間提出的永明文風綱領性理論。所謂「參易」,是指易見事、易識字、易讀誦參者,可知「參易」說的核心正在一個「易」字。「易」直解即「容易」之意,但其在「參易」說中的內涵則要豐富得多。

參易說形成於佛教世俗化推動士人接受審美俗尚的大前提下。影響這一理論形成的因素是多方向的,其中一個重要因素是佛教平易文風。佛教平易文風在謝靈運創作中的滲透,竟陵集團崇文倡佛文化環境對佛教平易文風在永明文人創作實踐中推動,以及作為「一代詞宗」的沈約自身的佛學背景 and 對文學歷史發展規律的總結,都是「參易」說形成的重要基礎。

주제어 : 南朝 永明文學, 參易說, 沈約, 佛教